

진안군, 숲가꾸기 조기 추진

20억6000만원 투입,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도모

진안군은 올해 20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매진할 예정이다. 숲가꾸기는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수목이 더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올해 숲가꾸기사업은 조립지가꾸기 1,000ha, 어린나무가꾸기 200ha, 큰나무가꾸기 130ha 등 총 1,330ha다. 진안군은 3월초 큰나무가꾸기 사업을 시작으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한

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립지 사후관리를 위한 풀베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향후 우량 경제림으로 육성, 산림의 생산성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숲이베기, 가지치기 등의 큰나무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과 더불어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숲가꾸기사업 현장 간 과외 해소와 적용 가능한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술자문단 등 외부전문가와 산주 또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 기술 중심의 관리강화를 통한 품질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황상국 산림과장은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건전한 산림자원 육성은 물론 수집된 산물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팔각나무기 등 다양한 공익적·경제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삼겹살데이 맞아 국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 (사)대한한돈협회 장수군지부는 삼겹살 데이를 맞아 장수군청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우리돼지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알리는 시식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국내산 축산물 소비 문화와 공급량 증가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하락으로 가중된 축산농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 이번 시식회는 대한한돈협회 장수군지부가 제공한 돼지고기로 열렸으며 지역 어르신들과 장수군직원 300여명이 맛있고 영양이 있는 한돈을 시식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기후변화에 맞선다

농업인 학습단체 현장교육 진행

무주군은 5일부터 6일까지 양일 간 전남 고흥군에서 기후변화대응 해법을 찾기 위한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90명(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 무주군 4-H본부)이 함께 하는 이번 교육은 이상 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신소득 작물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5일에는 고흥군 농업

기술센터 최민호 담당과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이경실 연구관을 만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의 재배기술과 시설재배 시 문제가 되고 있는 병해충 관리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6일에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아열대 특화작목연구단지를 직접 방문해 애플망고와 체리(무가운 비가림하우스), 한라봉, 참다래, 아보카도 등의 재배과정을 직접 보고 익히는 현장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 무풍면 신대섭 농가(61)는 "무주도 평균기온이 계속해서 오르는 등 기후가 예전 같지 않다"라며 "가지고 있던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아열대 작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하현진 강소농육성 팀장은 "우리 군에서는 2016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라며 "처음엔 낯설어하던 농업인들도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맞는 작물이나 농사법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 된 만큼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녀돌봄품앗이 사업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순조로운 품앗이 활동 의지 다져

무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돌봄품앗이 사업안내교육 실시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자녀돌봄품앗이 활동에 대한 이해도 상승을 목표로 하여 활동참여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녀돌봄품앗이 사업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자녀돌봄품앗이(이하 품앗이) 사업안내교육은 품앗이 참여 부모 대상 필수교육으로 품앗이 명과 활동계획서 및 활동일지 작성법, 활동관련 규칙 등 품앗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품앗이 사업안내교육은 총 1시간에 걸친 2회기 교육으로 맞벌이 부모와 전업육아부모가 참여

하기 원활한 시간대가 다른점을 고려하여 교육은 각각 오후에 1회, 퇴근이후시간대에 1회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품앗이에 참여 그룹별 1인 이상 참여로 기존 품앗이 회원과 신규회원간의 만남과 2019년 품앗이 활동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활동을 진행함에 더욱 의미가 깊다.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진원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존그룹과 신규그룹이 모두 화합하고 올해 품앗이 활동으로 각 가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2019년 1.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장수군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8,235호(표준주택 460호 제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마치고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증은 읍면별 담당 감정평가사 2명이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한 가격 산정이 되도록 오는 13일까지 검증을 진행한다. 검증 완료 후 이달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소유자에게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차주영 과장은 "올해 표준주택가격은 단독주택의 과포 현실화 추진으로 전년 대비 2.93% 상승했으며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 3S운동 추진 수사분야 치안고객 만족도 향상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에서는 2019년도 민생치안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사분야를 중심으로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3S운동을 적극추진하여 주민중심의 친절서비스 구현과 공정한 수사경찰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3S운동을 이란, Speed(신속 처리), Smile(친절한면담), Satisfy(주민이 만족하는 중장통지)의 추진전략을 통한 신속하면서 친절한 업무처리와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코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생활 주변 악성 폭력사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민생과 직결된 '생활적폐(채용, 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부정수급, 갑질행위, 사무장요양병원등)' 집중 단속으로 불공정 관행 근절 등 주민들에게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고원시장 청년몰 입주 청년상인 모집

진안군은 진안 고원시장 청년몰에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할 청년상인을 모집한다. 청년몰은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 약 5억 5000만원을 확보해 진안 고원시장 중앙광장에 조성된다. 이곳에 청년상인 점포 10개소와 공용 및 특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로 어우러진 특색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할매니점터와 시장 특화매장과 연계한 복합 청년몰로 구성해 진안 고원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입주 지원자격은 19세 이상 39세 이

하 예비 창업자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식음료 및 세계음식, 수공예품, 체험점포, 도소매서비스 등으로 특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면 가능하고, 진안군 거주자는 우대한다. 청년몰은 올 10월경 입주가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3월 29일까지로 전국대상 모집이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과 이에 따른 면접, 공통창업교육 및 실천창업 인큐베이팅 교육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입주자는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제품개발 등을 지원 받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